

지역 **메아리**

김제시 다문화 진로 나침반 실시

김제시(시장 이진식)는 지난 9일 중학교 1~2학년이 다니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남대 견학을 통한 역대 대통령과의 만남을 실시했다.

진로 나침반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청소년 진로지원사업은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지도와 심리·정서 상담, 직업능력 향상과 사회적응력 향상을 통한 다문화청소년의 올바른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해 온 사업이다. 올해는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어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로탐색과 분석, 진로설계 집단상담, 잡(Job)월드 직업체험, 현장 직업체험, 전문가와의 만남이라는 테마로 진행하여 관련 직업군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더욱 다양한 채널로 진로설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청소년들이 구체적인 꿈을 설계하도록 돕기 위한 집단상담을 통해 직업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커리어맵 만들기를 진행하며, 자녀의 꿈과 재능에 대한 공감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로계획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부모코칭을 함께 실시하여 부모들로부터 더 큰 호응을 얻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죽산면 복지기동대 봉사활동 펼쳐

김제시 죽산면(면장 서연중)은 지난 10일 복지기동대(대장 이경근) 9명과 함께 독거노인 2세대를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펼쳤다.

특히 본격적인 추수철이 다가오기에 앞서 복지기동대는 개인적인 일을 미루고 모두 모여 즐겁게 우리 이웃은 우리가 먼저 보살핀다는 한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번 봉사대상자인 독거노인 2세대는 거동이 불편하고 장기간 만성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어 주변 환경이 열악한 상태로 집안 대청소 및 곰팡이로 악취가 심한 부엌 도배, LED전등 교체 및 보일러 점검 등 실시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금구 3지구 급경사지 재해복구 완료

김제시는 금구면 선암리 소재 사면붕괴 위험지구에 대하여 재해복구 예방사업을 11일 완료했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낙석위험 및 사면붕괴 위험지구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걷고 싶은 마실길로 거듭나게 되었다.

금구 3지구 급경사지는 김제시에서 붕괴위험지구 D등급으로 지정 고시해 관리하였으며 총사업비 30억원(국비15억원, 도비 7억5,000만원, 시비 7억5,000만원)이 투자되었고 사업기간은 총 3개년이 소요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농업농촌분야 기본조례 제정

정책 기본이념·군수 책무 부여·군민 농민 정책참여 보장

완주군이 농토피아 구현의 농정철학이 녹아든 농업농촌분야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11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조례(이하 기본조례)'는 완주군의 농업농촌정책의 기본이념을 담아냄과 동시에 군수의 책무를 부여하고, 군민과 농민이 정책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여 '농토피아 완주' 실현을 뒷받침하게 된다.

기본조례에서는 농촌사회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의 소집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적농업 육성 및 농업농촌 유산지원 보증을 위한 다원적 기능활용사업 추진, 식품보유육성 및 먹거리의 SNS로 홍보 할 수 있도록 하는 먹거리사업 지원, 청년 없는 마을 및 소농과 고령농의 복지를 위한 농업농촌 복지지원, 공동체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 및 안심 농자재 지원, 건강한 농정의 지원 및 영농 등 5개 분야에 대한 사업추진 방향도 담았다.

특히 기본조례를 주목해야 할 가장 큰 대목은 지자체의 농업농촌 분야의 기본조례 라는 점을 넘어 조례에 농정철학을 담았다는 점이다. 조례의 기본이념에서 '농업이 진리다, 마을이 길이며, 농촌이 답이다'라는 농정철학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농정철학을 기반으로 농업인의 몫과 도시민의 정(情)이라는 두 바퀴 농업, 공동체 속에서 쉬 쉬는 활력 있는 마을, 함께의 가치와 어울림이 힘이 되는 지속 가능한 농촌의 설계와 작동으로 농토피아 실현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이 전통놀이 전문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생 배출

완주군이 전통놀이 전문지도사 양성 과정을 통해 총 2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11일 완주군은 지난 10일 완주 전통문화체험장에서 전통놀이 전문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성일 완주군수, 양용모 도의원, 서남용 군의원, 관광체육과장, 김소영 (사)전통문화콘텐츠 연구소 연 대표, 교육 수료생 및 가족들 40여명이 참석했다.

전통놀이 전문지도사 양성교육은 (사)전통문화콘텐츠 연구소 연에서 주관하고 올해 6월 6일부터 매주 1회씩 총 120시간 교육을 목표로 한국지능능력개발원 필기, 실기를 합격해 전통놀이 전문지도사 1급 자격을 취득하는 교육 과정이다.

수료생들은 마을 운영장, 로컬푸드 관련 사업자 등 완주군민 20명을 포함 총 25명으로 향후 완주 체험마을과 학교에서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전통놀이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나서 체험 관광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완주군은 전통놀이 전문지도사 수료생들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통놀이 전문지도사의 역량강화 및 전통놀이로 세대 간 교류와 전통놀이 문화를 전승하기 위한 사업을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번 교육은 완주 체험마을에 전통놀이문화를 접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체험마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통문화 보급과 체험마을 활성화에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을 주관한 김소영 (사)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연 대표는 "차별화된 역사·문화 자원들을 바탕으로 전통놀이와 접목한 완주문화체험 콘텐츠를 발굴하겠다"며 "이번에 배출된 전통놀이 전문지도사들과 함께 완주군이 전통놀이의 구심점으로 발전하는데 일조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발빠른 시정과약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 충실”

이후천 김제시 부시장 취임 100일 “지역 발전 가능성 알게 된 소중한 시간”

지난 8일로 취임 100일을 보낸 이후천 김제시 부시장은 “김제의 숨겨진 매력과 발전 가능성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이건식 시장이 제시한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비전 실현을 위해서 앞으로 1,300여 공직자와 함께 ‘새로운’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1일 취임한 이후천 부시장은 현장중심 소통행정을 통해 안정적인 시정운영을 뒷받침하고 동시에 직원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로 공직내부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등 김제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취임과 함께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사업장 13개소를 방문하여 발빠르게 시정현안을 파악한 이 부시장은 ‘갈등민원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주재하며 38년여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사 안들을 직접 챙겨나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넘어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을 꿈꾸는 지평선축제 준비를 위해 휴일도 잊은 채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한 보안을 당부하는 등 축제 준비를 진두지휘하여 지난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개최된 제19회 김제지평선축제의 성공개최를 견인하였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평소 습관처럼 되새긴다는 이후천 부시



이후천 김제시 부시장은 지난 100여일간 현안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사업 현장은 물론 국회의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동분서주하였다.

장은 지난 100여일간 현안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사업 현장은 물론 국회의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동분서주하였다.

이를 통해 ‘김제육교 재가설 사업비 70억원’과 ‘김제노인종합복지관 증축사업’ 등에 대한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확보하였고 수년째 지지부진하던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1,530억원 규모로 통과시키고 설계비 17억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하는 결실을 이끌어 내었으며, 한 박자 빠른 정부정책 대응을 위해 2019년과 2020년 국가예산 신규사

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하여 총 2,513억원 규모의 25개 사업을 발굴하였다.

또한 지난 8월 16일 확정된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발판으로 새만금국제공항과 신항만 건설 그리고 새만금 동서·남북도로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대형 국책사업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세계 169개국 5만여명의 참가가 예상되는 잼버리 대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잼버리와 연계한 지역사업 발굴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전통놀이 전문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생 배출

완주군이 전통놀이 전문지도사 양성 과정을 통해 총 2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11일 완주군은 지난 10일 완주 전통문화체험장에서 전통놀이 전문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성일 완주군수, 양용모 도의원, 서남용 군의원, 관광체육과장, 김소영 (사)전통문화콘텐츠 연구소 연 대표, 교육 수료생 및 가족들 40여명이 참석했다.

전통놀이 전문지도사 양성교육은 (사)전통문화콘텐츠 연구소 연에서 주관하고 올해 6월 6일부터 매주 1회씩 총 120시간 교육을 목표로 한국지능능력개발원 필기, 실기를 합격해 전통놀이 전문지도사 1급 자격을 취득하는 교육 과정이다.

수료생들은 마을 운영장, 로컬푸드 관련 사업자 등 완주군민 20명을 포함 총 25명으로 향후 완주 체험마을과 학교에서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전통놀이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나서 체험 관광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완주군은 전통놀이 전문지도사 수료생들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통놀이 전문지도사의 역량강화 및 전통놀이로 세대 간 교류와 전통놀이 문화를 전승하기 위한 사업을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번 교육은 완주 체험마을에 전통놀이문화를 접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체험마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통문화 보급과 체험마을 활성화에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을 주관한 김소영 (사)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연 대표는 "차별화된 역사·문화 자원들을 바탕으로 전통놀이와 접목한 완주문화체험 콘텐츠를 발굴하겠다"며 "이번에 배출된 전통놀이 전문지도사들과 함께 완주군이 전통놀이의 구심점으로 발전하는데 일조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산단사무소,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북 카페 조성

완주산업단지사무소(소장 한병삼)가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에 약 30여평 규모로 근로자 쉼터인 '북 카페'를 조성한다.

11일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인터넷활용과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수립하고 리모델링을 마칠 예정으로 근로자 쉼터에는 커피머신, 소파, 컴퓨터, 도서, 휴식 공간 등을 마련한다. 특히 일자리 알리미를 위한 기업체

용 공고도 병행해 근로자간 상호 교류와 지식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소통의 자리와 지속적인 기업의 일자리 정보를 통해 미스매치 일자리 해소에도 기여하도록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내부 리모델링을 마친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에는 탁구장 및 체력단련장, 노래방 시설이 완비돼 1일 평균 50여명이 매일 이용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종교(기도시설)시설도 별도로 마련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서바이벌

ATV / 버기카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팬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485-2)

대표 약력

일본인 스키 및 점프선수협동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메르티 지역 휘트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응급처치 오일 자격증 취득
국제대회 디슈 참가 및 우승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출전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국가대표 코치 역임	전)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일본 스포츠 '발우'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NSL2) 휘트	